

제 27 과 광풍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2019.10.23

본문 : 사도행전 27:1 ~ 44

요절 : 사도행전 27:24

미결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로마로 호송됩니다. 바울의 로마 이송여행은 누가의 동행으로 인해 매우 생생하고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행 가운데 같이 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활약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I. 본문 살피기

1. 로마로 향하는 바울 일행은 누구입니까?(1, 2)
 -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에 가게 되었고 다른 () 몇 사람과 함께 백부장 ()란 사람에게 맡겨졌다.(1)
 - 마게도냐 사람 ()도 동행했다.(2)
2. 가이사라에서 미항까지의 여정을 말해 보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3-8)
 - 일행은 시돈에서 떠나가다가 ()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끼고 항해했다.(4)
 -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로 가는 ()배로 갈아탔다.(5-6)
 - 니도와 살모네를 거쳐 ()해안을 방패삼아 ()까지 이르렀다.(7-8)
3. 바울의 충고는 무엇이며, 이를 무시한 결과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됩니까?(9-20)
 - 바울은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에도 타격과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10)
 - 그러나 백부장은 ()과 ()의 말을 더 믿었다.(11)
 - 출발은 순조로운 듯 했으나 () 섬 가운데로부터 ()라는 광풍이 불어 닥쳤다.(13-14)
 - 표류하던 배는 ()에 걸릴까 하여 연장을 내리고 ()을 바다에 풀어버렸다.(17-18)
 -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으며 ()의 여망도 사라졌다.(20)
4. 바울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안심시킵니까?(21-26)
 - 바울은 사람들에게 “() 너희 중에 아무도 ()에는 지장이 없고 오직 ()뿐이라”고 말했다.(22)

-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네게 주겠다”고 하셨다.(23-24)
-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로 될 것을 믿었으며 반드시 한 ()에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25-26)

5. 사공들의 음모는 무엇이며, 바울의 대처와 활약이 어떠합니까?(27-38)

-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닻을 내리는 척 하며 ()를 바다에 내렸다.(30)
- 바울은 배에 있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군인들이 ()을 끌어냈다.(31-32)
-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자 모두 ()하고 받아먹었고, 그 배에 인원은 총 ()명이었다.(34-37)

6. 바울에게 닥친 위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모면하게 됩니까?(39-44)

- 날이 새자 경사진 해안으로 된 ()이 눈에 들어왔다.(39)
-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 것이 좋다고 했지만, 백부장이 ()을 구하기 위해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육지로 나아가게 했다.(42-43)
- 남은 사람들은 ()이나 물건을 의지해서 상륙함으로 모두가 () 되었다.

II. 생각하기

1. 배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2. 어려움 앞에 놓인 바울과 그 밖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인생의 절망적 상황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III. 적용하기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인생은 마치 순풍이 불다가도 언제 광풍이 휘몰아칠지 모르는 바다와 같습니다. 인생길의 안전한 항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모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폭풍우의 항해 길에서 바울이야말로 276명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위로한 참다운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약하게 보이나 위기의 때에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